

에스더는 용감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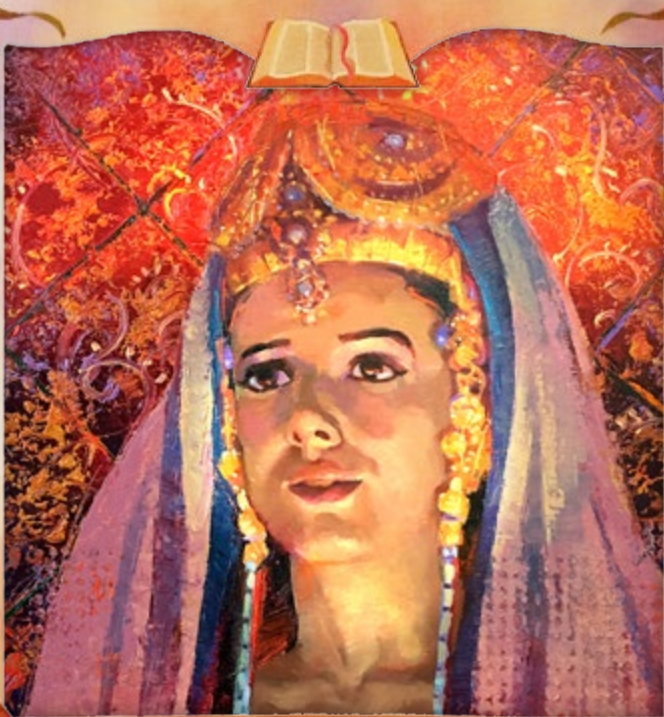
에스더는 바사의 왕비였어요. 왕은 에스더가 유대인인지 몰랐어요. 왕에게는 유대인을 싫어하는 아주 못된 친구가 있었어요. 그는 왕을 속여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했어요. 에스더는 왕에게 백성을 살려 달라고 간청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않고 왕좌로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에스더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위해 금식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에스더가 왕좌로 나아가자, 왕은 에스더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에스더는 왕과 그의 친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곳에서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혔어요. 왕은 법을 바꿀 수 없었지만,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에스더는 백성들을 구했어요!



“에스더 왕비”, 레베카 시, 8세, 베네수엘라 아라구아

에스더 2~8장에서 에스더에 관해 읽어 보세요.

삽화: 달린 마쉬



에스더

에스더는 용감했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도 용감하게 옳은 일을 할 수 있어요!

- 에스더 4장 14절의 마지막 부분을 외워 보세요.
- scripturestories.lds.org에서 구약전서 이야기 45장을 시청해 보세요.
- 금식할 나이가 되었다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을 위해 금식해 보세요.
- 나는 용감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
